KWMC 사역 소개

이름: 박진수 선교사

나이: 26세 (1995년 8월 23일)

지역: 북아프리카

사역: 기독교 국제학교 역사 교사, MK/TCK사역

소개: 2004년 9살 때 부모님을 따라 케냐에 가고 거기서 10년을 살고 미국 미시간주 캘빈대학교에서 역사/사회 교육학을 전공하고 2018년 졸업을 한 뒤 북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 국제학교 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케냐 선교사 자녀 학교에 교사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가셨고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교사의 꿈을 키우셨습니다. 대학교때 얼바나 선교 대회에 참석하며 하나님께서 북아프리카에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대학교 4학년 때 지금 가르치는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그다음 해에 미국 선교 단체와 연결이 된 이후에 바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 사역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미국사, 현대사, 고대사, 정치, 경제와 지리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 외에 점심시간과 자유시간에 학생들을 상담하며 이야기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며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올해 안식년을 시작하고 미국에 돌아와 멤버 캐어와 사역 리더십 석사를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다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4년을 사역하며 깨달은 것은 선교는 기다림 속에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많이 깨지고 많이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 선교지에 가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 더 감사했습니다, 더 배울 수 있었고 선배 선교사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경험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많이 몰라서, 많이 서툴러서 실수도 잦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겪은 고통과 기쁨을 보시고 학생들을 통해 열매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싸움을 겪고 또 겪으면서 오로지 기도로 말씀으로 이 전쟁을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저의 손을 붙잡고 4년이라는 짧고도 긴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숨 쉬고 움직이고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외칩니다.

학생들이 제가 떠난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붙잡으면서 많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깨질 듯 아팠습니다. 가르치면서 딴짓하고 듣지 않고 서로 떠들고 이야기하는 어린 친구들을 보며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론 다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었고 절대로 이 땅에 오기도 싫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 콕 박혀 눈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학생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시간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린 저의 모습을 잊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거두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저는 대단한 청년이 아닙니다. 어릴 때 심장 수술을 두 번 겪고 또래보다 몸집이 작고 어리고 연약했습니다. 아직도 매년 심장 체크를 해야 하고 폐도 안 좋고 장이 안 좋아 다들 생각하는 20대 건장한 청년은 아닙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인 줄 착각하고 학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강하심이라고 늘 선포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의 계획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학생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들어주고 옆에서 눈물 닦아 주며 포옹하며 토닥여주고 웃고 떠듭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기 힘들어도 그들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생각하며 그들에 대한 소망을 보며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학교로 나섭니다.

A person smiling in front of a bush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with medium confidence

A group of people in a classroom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A picture containing sky, outdoor, city, road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A group of people in a room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with medium confidence

A picture containing outdoor, sky, city, sunse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A group of people in a room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with medium confidenceA group of people posing for a photo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A picture containing floor, indoor, standing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